



경기도
GYEONGGI-DO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史 소식지

■ 제1호 ■

경기도의 거울

새로운 ‘경기도사’ 편찬의 내일

양보경(경기도사편찬위원회 위원장)

■ 경기도의 위상과 역할 ■

인구면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2021년 7월말 현재 경기도 인구는 1,387만이다. 대한민국 인구의 1/4 이상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는 21세기 경기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무엇으로 21세기 경기도를 보여주고, 남길 것인가.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며 남북 분단의 현장을 끼안고 있는 정치, 사회, 지리적 특성, 특히 20세기 후반 이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어온 격변의 장소로 수많은 충위를 형성하고 있는 경기도 시공간의 흔적들은 날아가 버릴 먼지처럼 위태롭다.

■ 새로운 경기도사 편찬의 시작 ■

1955년부터 200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간행되었던 경기도지·경기도사는 경기도 지역의 모습을 비춰주고, 경기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모범적 성과였다. 도사편찬 과정에서 수집된 각종 지역자료들은 경기도에 관한 문화, 자료와 기억의 보물창고가 되었다. 그러나 경기도사편찬위원회는 지난 2011년 폐지되었다. 역사와 그 무대, 주인공들은 시시각각 변한다. 기억하고 정리하지 않은 역사는 존재하지 않은 역사가 된다. 기억은 스러져 가고 있었으며, 정리할 종합시스템은 부족했다.

특히 2014년 ‘경기도 600년’, 2018년 ‘경기 정명 1000년’을 지나면서 경기도의 위상과 정체성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고민들이 모여 경기도사편찬위원회를 10년 만에 다시 설치하였다. 그리고 경기도사편찬팀이 올해 3월에 신설됨으로써 새로운 경기도사 편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새롭게, 도민과 함께, 쓰임있게 ■

경기도사 편찬이 첫발을 내딛으며 결정한 경기도사의 3대 편찬 방향은 “새롭게”, “도민과 함께”, “쓰임있게”이다. 새로운 경기도사 편찬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당연한 과제이다. 디지털전환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매체와 자료의 수집과 재현, 디지털 플랫폼, 아카이브 구축, 그리고 새로운 주제와 시각을 반영한 경기도사 편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민과 함께 하는 경기도사는 도민이 참여하고, 도민의 삶과 생활이 반영되며, 도민을 기억하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기도사를 뜻한다. 쓰임있는 경기도사는 책으로 간행되는데 그치지 않고, 영상과 지도, 각종 콘텐츠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설 것이다.



■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 천년의 바탕 ■

역사는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봄으로써 미래를 바람직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21세기 경기도사는 1,380만 경기도민의 소중한 삶과 문화와 역사를 잘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경기도민의 소중한 터전인 경기도라는 중요한 공간, 31개 시·군의 지역의 모습을 새롭게 비추는 거울을 만들 때 의미가 있다. 그러나 새로운 거울을 만드는 것은 경기도사편찬위원회만이 아니다. 경기도민 모두가 각자의 역사를 쓰듯 애정어린 관심으로 함께 만들 때 가능할 것이다. 경기도사 편찬 과정은 경기도의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고 만들며,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 천년의 바탕을 만드는 또 하나의 역사가 될 것이다.

양보경 現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지리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대한지리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주요저서로는 『고지도와 천문도』 등이 있다.

경기도사 편찬이야기

과거 경기도사 편찬은?

서 경(경기도 학예연구사)

2009년까지 진행됐던 3차 편찬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던 경기도사 편찬이 2019년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재개되었다. 경기도사 편찬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경기도’의 역사를 알리고, ‘경기도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일깨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이처럼 커다란 작업인 경기도사 편찬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지금, 과거를 살피는 작업이 필요하다. 과연 과거 경기도사 편찬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을까.

1차 경기도지(1955~1957) 편찬

가장 최초의 경기도사는 ‘경기도지(京畿道誌)’의 형식으로 편찬되었는데, 1955년부터 1957년까지 상, 중, 하 3권으로 제작되었다. 1권은 지리, 역사, 2권은 행정, 교육, 종교, 사회보건 등의 9개 주제, 3권은 인문, 풍속, 명승·고적으로 구성되었다. 다양한 주제를 담은 경기도지는 6·25전쟁 이후의 경기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1946년 현대 행정구역상의 ‘경기도’가 설치된 이래 처음 만들어진 결과물로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볼 수 있다.

2차 경기도사(1977~1982) 편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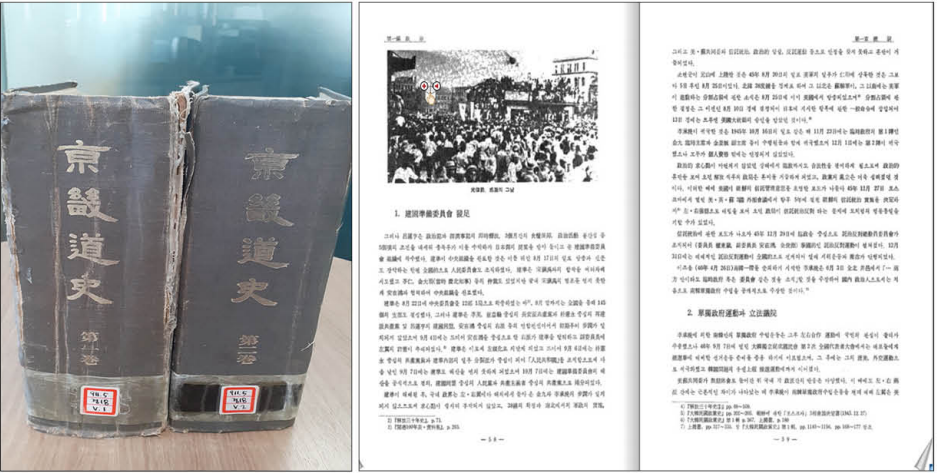
이후 1977년에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 조례가 제정되고 1979년과 1982년에 각각 경기도사 1, 2권이 편찬되는데, 이것이 두 번째 경기도사다. 1권은 선사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시기를, 2권은 8.15 광복 이후부터 당시까지의 역사를 다루었다. 1차의 경기도지와는 달리 ‘역사’에 초점을 둔 사(史)의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차 경기도사(1995~2009) 편찬

3차 편찬은 1995년 수립된 ‘경기도사편찬 10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었는데, 2002년부터 2009년까지 9권의 책으로 제작하였다. 각 권은 선사시대, 고대, 고려, 조선 전·후기, 구한말(조선말기~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해방시기, 현대로 구성되었다. 경기도의 역사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9개로 구분하여 각각 별권으로 발간함에 따라, 경기도의 시대별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2009년에 발간된 9권 현대를 끝으로 3차 경기도사는 마무리됐다. ‘역사’를 다뤘다는 점에서는 앞서 이뤄진 경기도사와 비슷하지만 ‘경기도사 자료집’과 ‘경기도사 연구총서’ 등을 별도로 제작한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는 단순히 2권(2차)과 57권(3차)이라는 양적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경기도사 편찬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활동이 활발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2011년 경기도사편찬위원회는 폐지되었다.

새로운 경기도사 편찬을 위한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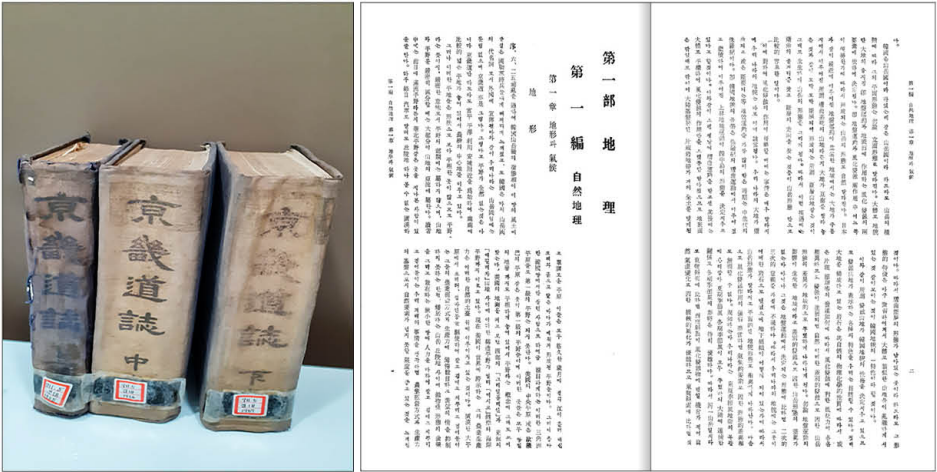
경기도사는 수십 년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편찬되었다. 3차에 이르기까지 각기 차이점은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경기도를 하나로 묶고 도민에게 ‘경기도’를 알린 유의미한 결과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 편찬 작업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좋은 점은 배우고, 나쁜 점은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로이 편찬될 경기도사의 목표와 쓰임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경기도사를 편찬한다는 그 자체도 거대한 과업이긴 하지만 그것이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리 양질의 도사를 편찬한다 하더라도, 도민이 활용하지 않는다면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기도사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내실 있는 문화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편찬의 출발 지점에 선 지금, 결과물의 질적인 부분과 도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철저한 계획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도민에게 사랑받는 경기도사가 편찬되길 희망해 본다.



[사진 2] 2차 경기도사(1979~1982)



[사진 3] 3차 경기도사(2002~2009)



[사진 1] 1차 경기도지(1955~1957)

경기의 등장과 경기 이야기

정 성 희 (실학박물관장)



경기감영도(京畿監營圖)_출처: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

■ 나라의 근본, 근본의 땅, 경기도 ■

조선왕조실록에 ‘경기(京畿)’는 ‘나라의 근본’, ‘근본의 땅’, 혹은 ‘사방의 근본’이라 표현되어 있다.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기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또 모든 길은 경기로 통한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경기’는 오늘날 행정구역으로서의 경기도와 달리 수도 ‘경(京)’과 수도 주변지역인 ‘기(畿)’로 이루어진 개념이었다. 말하자면 경기는 군주가 거주하는 궁궐과 도성을 보호하고 도성의 기능과 역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설정된 지리적 공간이었다.

■ 경기의 등장 ■

그러면 우리역사에서 언제부터 경기가 등장했을까. 고려 성종 14년인 995년에 왕도에 개성부를 두고 개성부를 둘러싸고 있는 적현 5곳과 기현 7곳을 설치한 것이 경기의 원조였다. 이것이 고려 현종 9년(1018)에 개성부가 없어지고 도성 인근의 지역을 각각 주현(州縣)인 개성현과 장단현으로 재편하면서 이른바 ‘경기제’라는 것이 시작되었다. 주현은 지방관이 파견되는 지역을 말한다. 주현인 개성현과 장단현은 12개의 속현을 다스렸으며, 이 12개의 속현 지역이 바로 경기 지역인 셈이다. 이러한 경기제는 고려 말까지 확대와 축소를 반복하였는데, 도성 주변을 아우르는 이곳에 귀족관료들이 거주하면서 점차 경기는 나라의 중심지이자 왕조의 지지기반 지역이 되었다.

■ 수도를 둘러싼 경기도 ■

수도 주변부라는 공간적 한계성으로 고려시대에는 수도인 개성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에는 수도 한양을 중심으로 한 경기의 권역이 정해졌다. 수도도 아니고 지방도 아닌 군주의 통치력이 미치는 공간으로 일종의 직할지적 성격이 컸던 경기가 수도와 구분되는 행정적 위상을 가지게 된 것은 조선시대 와서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경기는 관료들의 물적 토대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나아가 수도를 보호하는 군사 거점 지역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 조선후기, 국가의 중심지로 ■

조선후기에 경기지역은 서울의 주변부가 아닌 국가의 중심지로 오롯이 부상하였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종래 정치도시이자 행정도시에서 새로운 경제도시로 발돋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 지역은 수도의 주요 물자 운송지로 주목되었으며,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경제적 공간적 범위가 더욱 확장되었다. 조선시대 전국의 교통망은 수도인 한양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조성되었다. 한양의 외곽에 위치한 경기는 이러한 대로들이 지나는 경로였다. 경기를 지나는 대로는 18세기 이후 유통경제의 확대에 점차 늘어났다. 경기는 확장된 수도, 즉 ‘수도권’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통팔달의 지역이 된 것이다.

■ 근현대의 경기도의 변화 ■

갑오경장으로 1895년에 경기도가 없어지고 한성부와 인천부 등 부 체제로 개편된 적도 있었지만, 불과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도 체제가 부활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수도 서울은 경성부가 되어 경기도에 소속되었고, 해방 후 경성부가 다시 서울시가 되면서 서울과 경기도가 분리되었다. 이후 한국전쟁으로 개성, 개풍, 웅진 등이 북에 넘어가면서 경기북부의 지형이 바뀌게 되었다.

■ 천년의 역사를 가진 경기도의 도약 ■

1967년 서울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사 오면서 본격적인 경기도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역사적 부침을 겪은 경기도는 반세기 만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인구 1,387만명의 대한민국 최고의 파워를 자랑하는 광역자치단체로 우뚝 섰다. 다원화된 사회에 천년의 역사를 가진 경기도는 축적된 문화유산과 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는 곳이자, 대한민국 문화의 원형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2021년 새로운 경기도사 편찬이 시작된다고 한다. 비록 ‘경기’ 역사가 시작된 것은 천년에 불과하지만, 동아시아 최초의 아슬리안 주먹도끼가 발견된 곳이자, 조선후기 실학이 탄생한 곳으로 유서 깊은 경기의 역사 문화 정체성이 담긴 ‘新경기도사’가 편찬 되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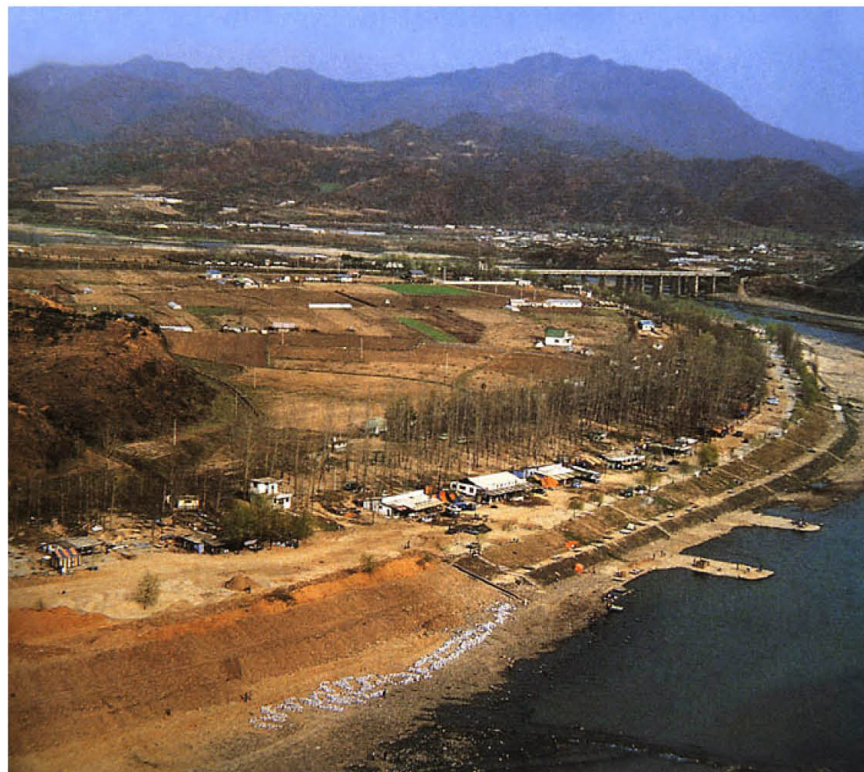
정성희_경상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역사학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경기도박물관 학예운영실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주요저서로는 『세종의 하늘, 조선후기 우주관과 역법의 이해』 등이 있다.

경기지역 선사시대 사람들

장덕호(경기문화재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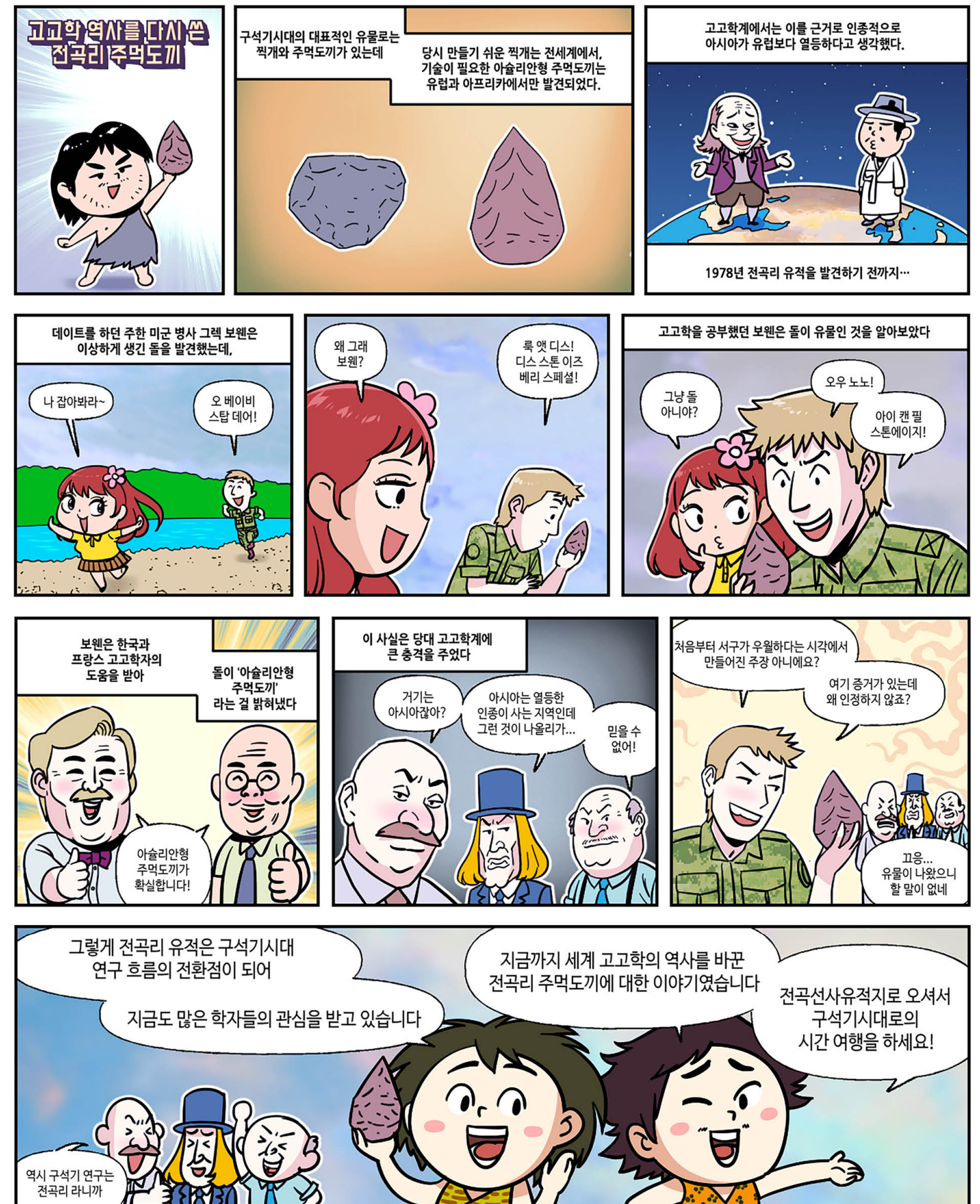
■ 구석기시대, 경기지역 첫 사람의 등장 ■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운 수십만 년 전부터 사람들은 경기도에 터를 잡고 살아왔다. 구석기 시대인들은 주로 한탄강, 임진강, 북한강, 남한강, 한강 등 큰 강 주변과 여기로 흘러드는 크고 작은 물줄기 주변에서 살았다. 연천 전곡리, 포천 화대리, 포천 중리 용수재울과 늘거리, 남양주 호평동, 광주 삼리 유적 등 40여 곳이 발굴되어 알려져 있다.



[사진 1] 연천 전곡리 유적_출처:문화재청

연천 전곡리 유적은 1978년 미군 병사가 주먹도끼를 발견한 후 10여 차례 발굴조사를 통해 ‘모비우스 이론’ 동아시아 지역은 아프리카나 유럽에 비해 석기 제작 기술이 후진적인 외남식 양식의 구석기만 나온다는 것을 반박하는 자료인 선진적인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출토된 유적으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또한 포천 중리 늘거리와 남양주 호평동 유적에서는 흑요석 재질의 좀돌날몸돌과 좀돌날이 많이 발굴되었는데, 백두산 계통의 흑요석이 경기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지역 간의 교류에 의한 것으로서 임진 - 한탄강과 한강 유역 등 경기 지역 일대가 흑요석 유통의 주요 루트이자 확산의 교두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 2] 주먹도끼



[사진 3] 쫄날몸돌과 쫄날



[사진 4] 빗살무늬 토기



[사진 3] 금현리 지석묘 출처: 포천시

■ 신석기시대, 농경과 정착생활의 본격화 ■

한반도 중서부지방의 신석기 문화는 기원전 4,50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시기에는 빙하기가 끝나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서해안에 갯벌이 형성되고 한강과 같은 큰 강 주변의 지형과 식생이 안정되면서 풍부한 식량자원이 공급되어 신석기인들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경기지역에서 조사된 신석기시대 유적은 집자리 유적과 조개더미 유적으로, 지금까지 150여개의 유적이 알려져 있다.

유적들은 대체로 내륙 강변의 충적대지와 강의 지류, 해안가, 섬 지역에 위치하는데, 남양주 호평동 지새울, 용인 농서리, 성남 판교 유적과 같이 내륙 깊숙한 얕은 언덕에서도 신석기 시대 집자리가 발견되었다. 이는 경기도 전역에 걸쳐 신석기시대 유적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하남 미사리, 시흥 오이도, 연천 삼거리, 파주 옥석리 유적 등이 대표적이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빗살무늬토기로, 저장용기인 토기의 출현은 농경의 시작과 정착생활을 짐작하게 하며, 특히 그릇의 바닥이 뾰족한 첨저 빗살무늬토기는 경기도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남부와 강원도 일대로 확산되었다.

■ 청동기시대, 청동기의 제작과 고인돌 ■

우리나라의 청동기시대는 민무늬토기와 마제석기가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청동기를 제작 사용한 시기로서, 고인돌과 같은 정형화된 묘제가 등장하고 농경이 주요 생산경

제가 되면서 사회가 한층 복잡하고 다양화된 시대이다. 경기도의 청동기시대 유적은 주로 하천변의 충적지와 산지 또는 언덕에 위치하며, 주거지 유적과 고인돌을 주체로 하는 분묘 유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강본류를 비롯하여 북한강, 남한강, 임진강, 한탄강, 탄천, 진위천, 안성천 등 하천 본류와 지류 주변에 다양하게 분포하며, 하남 미사리 유적은 남한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청동기 시대 유적으로 평가된다.

여주 혼암리, 가평 대성리, 수원 금곡동, 화성의 동학산·천천리·반송동, 오산 내삼미동, 평택 소사동 등이 대표적 마을유적이다.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인 고인돌은 한반도에 3만 여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경기도에는 탁자식과 개석식 고인돌이 함께 발견되고 있어 남북을 연결하는 중간지대였음이 밝혀졌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2007년에 960여기가 조사되었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500여기로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보존대책이 필요하다.

■ 문화의 수용, 융합, 전파의 중심, 경기도 ■

경기도에 살았던 선사인들은 시베리아 지역의 북방문화와 중국 서북지방인 요녕지방의 문화, 발해만을 통해서 중국 중원의 문화를 받아들였다. 즉 경기지역은 선사시대부터 다양한 문화들이 모여드는 곳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그

렇게 만들어진 문화를 전파하는 문화의 공급지였다. 이러한 문화 전통은 면면히 이어져 고려, 조선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문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 중단된 경기도사편찬사업이 재개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벤트 하듯 몇 년에 한 번씩 경기도의 역사를 편찬해서는 한층 많아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기에 역부족이다. 특히 경기도는 많은 개발로 인해 발굴 되어진 고고학적 성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빠르게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경기도사편찬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4차 산업혁명시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경기도사를 편찬하기를 기대해본다.

장덕호 명지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한국사 석사 취득 및 박사학위 수료를 하였다.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실학박물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주요저서로는 『경기, 천년의 문화사』 등이 있다.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이야기

지도로 보는 경기도 첫 번째 이야기

“경기” 그 시작을 지도에 담다.

■ 지도는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장소를 이해하는 중요하고 근본적인 수단 ■

지도는 인간이 생각하는 세계와 공간을 표현하고 있으며, 인간 내부의 정신적 세계와 외부의 물리적 세계의 연결고리이자,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장소를 이해하는 중요하고 근본적인 수단이다. 우리는 지도를 통해 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과학기술과 지도 표현을 위한 미술, 지도에 담겨져 있는 인간 삶의 공간과 사고, 그리고 지도 제작 당시의 문화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즉, 당대의 사회·문화적 요청에 따라 지도가 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볼 수 있을뿐만 아니라, 지도에 표현된 지리정보를 통해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를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지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지도는 기원전 6세기 경 만들어진 바빌로니아 세계지도(Babylonia world map)이다. 이 지도는 바빌론을 중심으로 실제 세계와 가상의 세계가 동시에 표현되어 있는 점토판 지도로서, 당시 그들의 삶을 파악하거나 상상할 수 있게 한다. 지도는 15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인들이 세계의 바다를 돌아다니며 항로를 개척하고 탐험하여 식민지를 건설하는 수단이었으며, 때로는 정치적 무기가 되어 지도를 가진 자가 권력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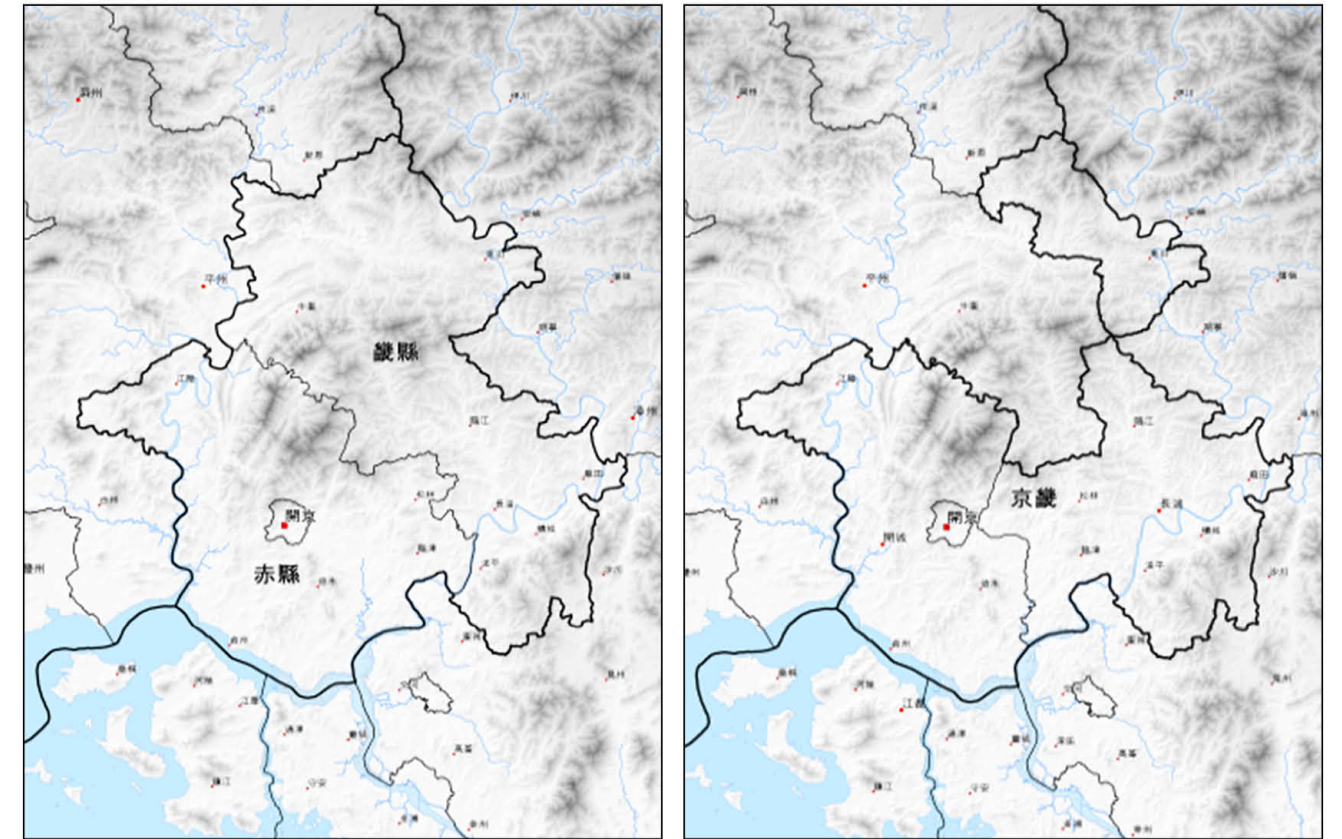
근대지도 탄생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헤르하르뒤스 메르카토르(Gerhardus Mercator, 1394~1594)는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세계지도를 완성하여 바다를 향한 사람들의 욕망을 도왔고, 이 시기에 지도는 보다 정확한 지역의 경계와 지리 정보를 포함한 토지대장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했다. 이는 자신의 위치 확인을 넘어서, 국가의 영역 확보와 확인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알려지지 않

았던 지역에 대한 새로운 지리 정보를 담고 있는 지도는 더 넓은 세계와 우주를 꿈꾸었던 인간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줌으로써 또 다른 새로운 문화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 지도는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 방식으로 표현되어 왔지만, 지도가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과 목적은 비슷하다. 이처럼 지도란 우리가 살고 있는 지리적 공간을 축소된 그림, 약속된 기호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지도에는 장소의 자연지리 정보는 물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간과 삶이 축적되어 있다.

■ 지도에는 장소의 자연지리 정보는 물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간과 삶이 축적 ■

현재 전하는 우리나라 단독 지도 중 가장 오래된 지도는 1402년(태종 2)에 대사성 권근(權近), 좌정승 김사형(金士衡), 우정승 이무(李茂), 이회(李薈)가 제작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로, 동서양을 통틀어 가장 훌륭한 세계지도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아시아와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까지 지도에 포함되어 있다. 지도 하단에 있는 양촌(陽村) 권근이 쓴 발문에 따르면, 이 지도는 중국에서 제작한 《성교광피도(聖教廣被圖)》와 《혼일강리도(混一疆理圖)》를 합하여 새로 제작한 것이다.



[그림 1] 997년 적현(赤縣)과 기현(畿縣) 지도(좌) 1018년 경기 지도(우)

그리고 무엇보다 발문 첫 시작을 “천하는 지극히 넓다(天下至廣也).”로 시작하며, 중간에는 “... 새 지도를 만드니, 조리가 있고 불 만하여 참으로 문 밖을 나가지 않고도 천하를 알 수 있다. 대저 지도를 보고서 지역의 멀고 가까움을 아는 것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한 도움이 되는 것이니, (勒成新圖 井然可觀 誠可以不出戶而知天下也 夫觀圖籍而知地域之遐邇 亦爲治之一助也) ...”라고 지도의 제작 목적을 밝히고 있다. 즉, 지극히 넓은 천하에서 조선의 위치와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지도를 제작하였고, 동시에 새로 건국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수단으로 지도를 제작하였다. 이는 조선시대 지도 제작의 목적과 수준뿐만 아니라, 그 이전 한반도에서 제작되었을 지도의 모습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도에 담긴 경기도의 모습을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시의적절한 작업이다. 다만, 현재 전하고 있는 경기도 지도 대부분이 16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경기도 지역의 모습은 역사적 자료와 현대 지도를 결합한 형태로서 대체하고자 한다.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이야기

지도로 보는 경기도 첫 번째 이야기

“경기” 그 시작을 지도에 담다.

■ 지도에 담긴 경기도의 모습을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시의적절한 작업 ■

우선 ‘경기(京畿)’라는 지명의 시작을 찾아보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는 ‘경’은 ‘천자(天子)가 도읍한 경사(京師)’를 뜻하고, ‘기’는 ‘천자의 거주지인 왕성(王城)’을 중심으로 사방 500리 이내의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기(京畿)’라는 지명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 지역적 범위가 확대되어 ‘왕도의 외곽지역’이라는 일반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왕도의 외곽지역을 ‘경기’라고 칭한 것은 고려시대이다. 고려는 건국 이후 수도인 개경(開京)을 개주(開州) 혹은 황도(皇都) 등으로 부르다가 995년(고려 성종 14)부터 개성부(開城府)라 칭하였다. 그리고 개성부는 개성에서 가까운 6개 고을인 적현(赤縣)과 적현보다 멀리 떨어진 7개 고을인 기현(畿縣)을 관할하였고, 이 지역이 바로 고려 경기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1018년(현종 9) 고려는 대대적인 지방제도 개편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주현(主縣)-속현(屬縣) 제도의 기틀을 완성하였다. 개성의 외곽지역을 ‘경기(京畿)’라고 칭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며, 기존의 개성부를 없애고 새로 개성현령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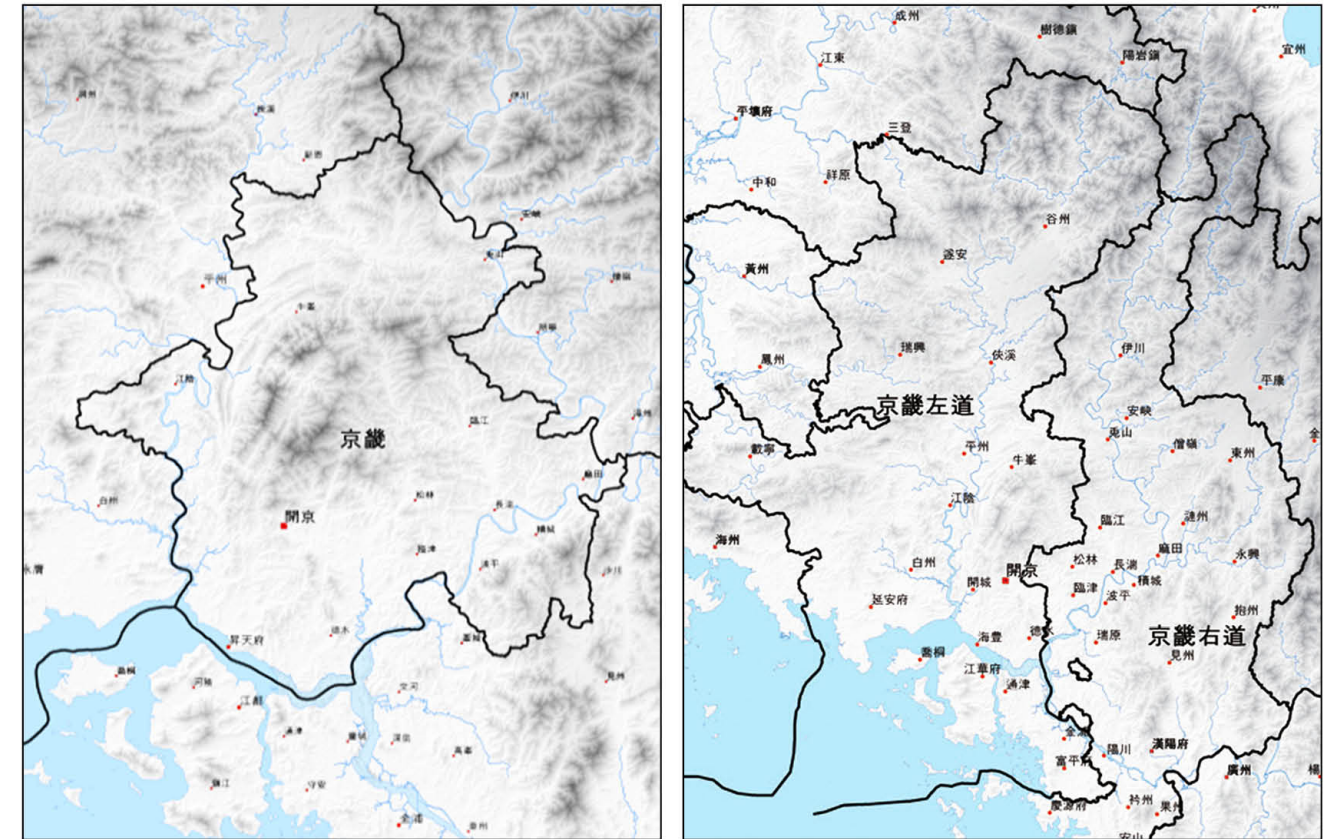
당시 경기의 영역은 정주(貞州)와 덕수(德水), 강음(江陰)의 3개 현을 관할하였던 개성현(開城縣)과 송림(松林)과 임진(臨津), 토산(兔山), 임강(臨江), 적성(積城), 파평(坡平), 마전(麻田) 등 7개 현을 관할한 장단현(長湍縣)의 현령관(縣令官)이 축이 되었다. 즉, 당시 경기는 12개 현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개성현과 장단현이

주현(主縣)이 되고, 나머지 10개 현은 속현으로 편제되었다. [그림 1] 이때부터 칭해진 ‘경기’는 천년이라는 역사 속에 지리적으로 그 위치와 소속 지역이 변화하였고, 그 시간의 변화 속에 ‘경기’ 지역의 삶의 모습과 문화가 만들어져 왔다.

■ 경기는 천년이라는 역사 속에 지리적으로 그 위치와 소속 지역이 변화 ■

1062년(문종 16)에 고려의 경기는 일부 개편된다. 개성현이 개성부로 복구되었으며, 개성현령 또한 지개성부사로 환원되었다. 그리고 서해도 평주의 관할 하에 있던 우봉군을 경기도에 새로 편입시켰다. 이에 당시 경기는 1부(개성부)와 1군(우봉군), 그리고 기존의 11현으로 구성되었으며, 무신집권기에 해당하는 1219년(고종 6) 당시의 경기는 2부(개성부와 승천부)와 1군, 10현 등 13개 군현으로 편성되었다. 이후 몇 번의 크고 작은 행정구역 변화가 있었고, 고려 말기인 1390년(공양왕 2)에는 그 영역을 확대하고, 확대한 경기 지역을 좌도(左道)와 우도(右道)로 분리하였다.

기존의 경기 소속 군현 중 장단(長湍)과 임강(臨江), 토산(兔山), 임진(臨津), 송림(松林), 마전(麻田), 적성(積城), 파평(坡平) 등 8개 군현은 경기좌도에, 그리고 개성(開城), 강음(江陰), 해평(海豐), 덕수(德水), 우봉(牛峯) 등 5개 군현은 경기우도에 소속되었다. 그리고 경기좌도에는 양광도의 한양(漢陽), 남양(南陽), 인주(仁州),



[그림 2] 1219년 경기 지도(좌) 1391년 경기 지도(우)

* 그림 1과 그림 2에 사용한 지도는 경기연구원이 주최한 2017년 ‘경기 定名 천년 기념 학술세미나 및 특별전시’에 전시되었던 지도로, 이는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GIS를 활용하여 정요근·김현중이 제작한 지도이다.

안산(安山), 교하(交河), 양천(陽川), 금주(衿州), 과주(果州), 포주(抱州), 서원(瑞原), 고봉(高峯) 등과 교주도의 철원(鐵原), 영평(永平), 이천(伊川), 안협(安峽), 연주(漣州), 삭녕(朔寧) 등을, 경기우도에는 양광도의 부평(富平), 강화(江華), 교동(喬桐), 김포(金浦), 통진(通津)과 서해도의 연안(延安), 평주(平州), 배주(白州), 곡주(谷州), 수안(遂安), 재령(載寧), 서흥(瑞興), 신은(新恩), 협계(俠溪) 등을 추가로 편입시켰다. [그림 2]

양윤정_성신여자대학교에서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지리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와 고지도 연구학회 총무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저서로는 『고지도와 천문도』 등이 있다.

* 9월부터 12월까지 소개되는 “지도로 보는 경기도”는 『경기학광장(vol1. 2019여름창간호)』 특집논고(저자_양윤정)를 재편집하였다.